

Strategy

수급 계절성의 변곡점 통과.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까?

배당락 전일 외국인, 기관 대규모 순매수, 개인 대규모 순매도

- 배당락일을 하루 앞두고 개인 대규모 순매도가 출회되었고, 외국인, 기관은 강한 매수세를 기록했다. 12월 28일 하루에만 KOSPI 시장에서 개인 1조 9,976억원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 각각 4,489억원, 1조5189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KOSDAQ 시장에서는 개인 1조 1,611억원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80억원, 8,262억원 순매수를 보였다.

매년 반복되어 왔던 12월 수급 계절성

- 대규모 개인 매도, 기관, 외국인 순매수는 매년 반복되어 왔던 12월 수급의 계절성이다. 한국 기업들의 결산이 대부분 12월에 집중(2020년 기준 80%)되어있기 때문이다. 12월 결산 법인들의 올해 배당락일은 29일로,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곡점이었다. 올해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에서 제외되기 위해선 28일까지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기관은 현선물 베이스스 확대에 의한 프로그램 매수의 마지막 기회이자, 공매도 세력들에게는 배당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분기점이었다.
- 실제로 12월 한 달 동안 KOSPI시장에서 기관은 5.3조원, 금융투자는 5.5조원을, 외국인은 3.7조원을 순매수했다. 프로그램 매수, 숏 커버링 매수가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KOSPI 시장에서 9.2조원 KOSDAQ에서 2.5조원을 순매도 했다. 2021년에도 12월 수급 계절성이 뚜렷했다.

배당락 이후 외국인, 기관 매물압력 확대 가능성

- 배당락을 지나면서 수급 계절성의 변곡점을 통과했다. 이제는 수급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12월 KOSPI 하방경직성 강화, 반등시도에 힘을 실어주었던 기관 프로그램 매수, 외국인 숏커버링 매수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12월 수급 계절성만큼 1월 수급 계절성도 매년 반복되어 왔다.
- 과거 프로그램 매매 패턴을 보면 12월에 유입된 프로그램 매수는 다음해 1월, 2월에 대부분 청산되어 왔다. 12월 금융투자 순매수 규모가 5.5조원에 달한다고 봤을 때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 대차잔고도 12월에 급감, 1월에 급증 패턴을 보여왔다. 올해 12월 대차잔고는 7조원이 감소했고, 공매도 잔고는 2,950만주 줄어들었다. 새롭게 공매도 구축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을 본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Strategist, RA 김정윤
jungyoon.kim@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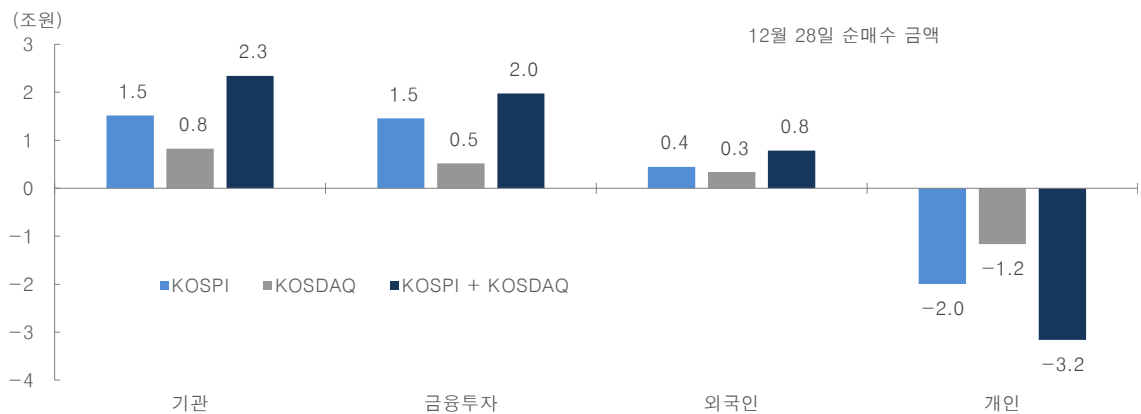
1월 ~ 2월 변동성 확대 경계. 수급의 부메랑 효과, 1월 계절성도 영향을 미칠 것

- 배당락 전 수급 계절성은 이후 매물압력을 높이는 변수로 전환될 전망이다. 배당락이 반영된 이후 1월에는 프로그램 매물 출회, 공모도 구축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펀더멘털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KOSPI 수급상황이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1월 ~ 2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 중 하나이다.

개인 순매수 유입 기대. 대형주보다는 KOSDAQ과 중소형주 단기 트레이딩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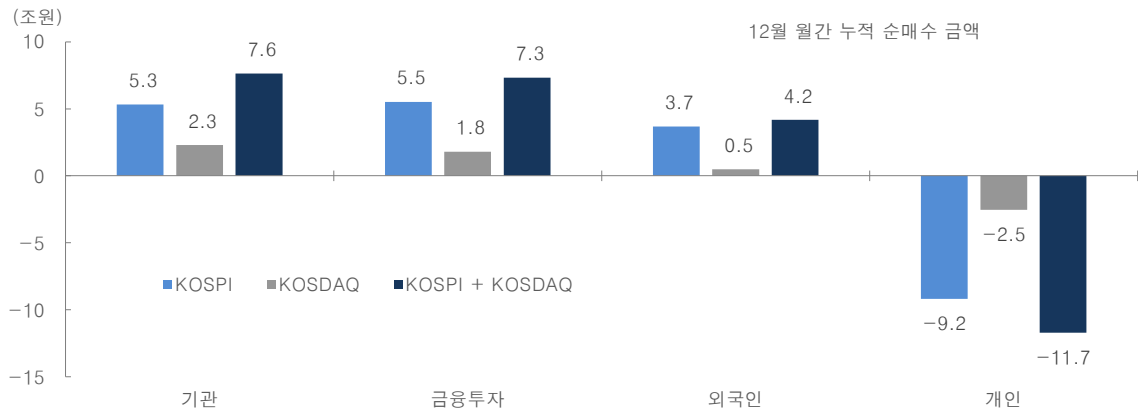
- 한편, 12월 개인 대규모 매물은 1월 대규모 순매수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KOSPI와 대형주보다 KOSDAQ과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가 전개되어 왔다. 특히, 1월에는 개인 순매수에 힘입은 KOSDAQ과 중소형주 상대적 강세가 뚜렷했다.
- 2022년 1월에는 KOSPI 등락 속에 KOSDAQ과 중소형주에서 매매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연초 정책 동력도 강할 수 있다. 당분간 종목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1. 배당락 전일 외국인, 기관 대량 매수, 개인 대량 매도. 12월에 반복되어 왔던 계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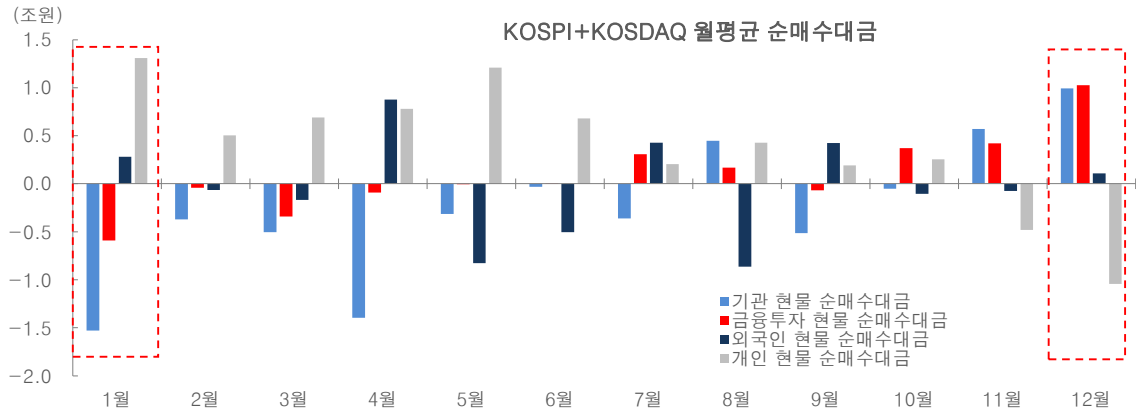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12월 수급 계절성. 한 달 동안 외국인, 기관 대량 매수, 개인 대량 매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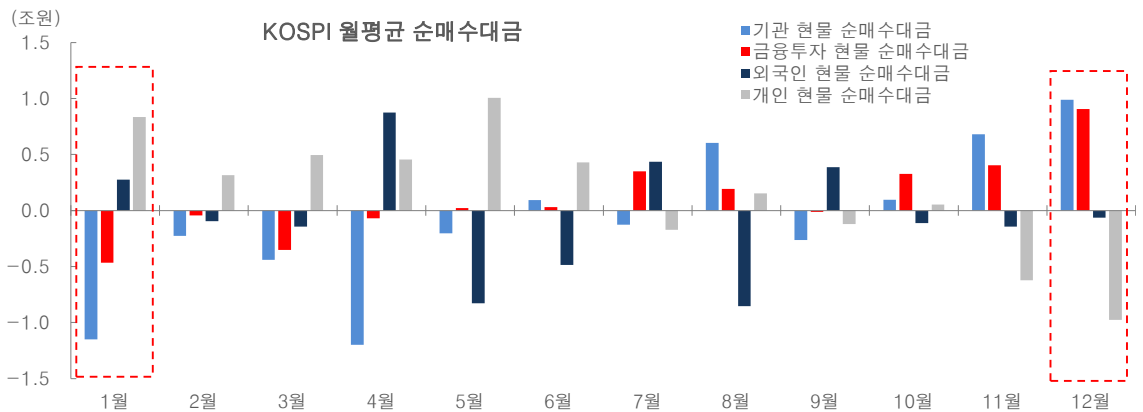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12 월 수급 계절성. 1 월에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12 월 기관 순매수는 1 월 순매도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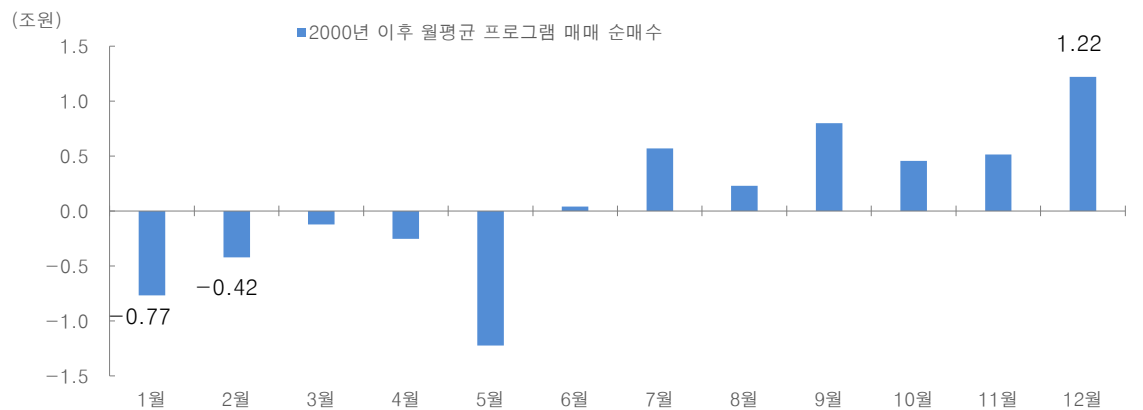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12 월 수급 계절성. 1 월에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12 월 개인 대량 매도는 1 월 순매수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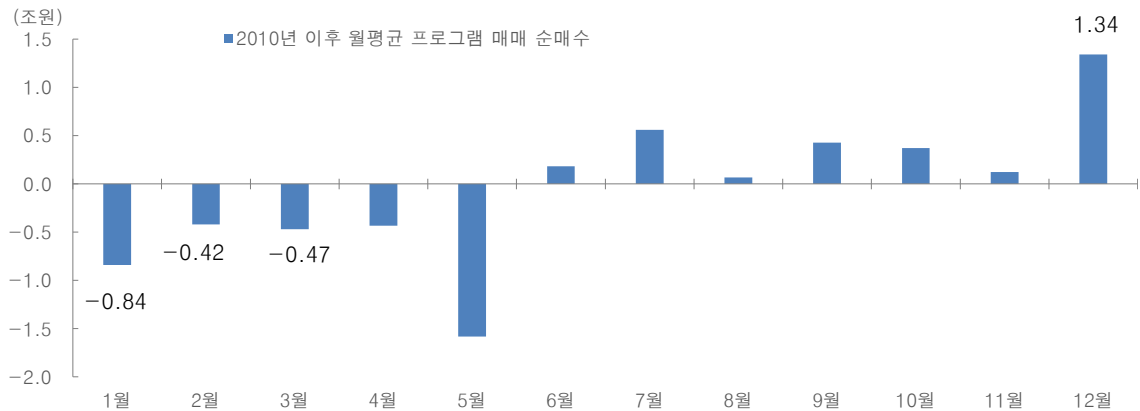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12 월에 유입된 프로그램 매수는 1 월, 2 월 대부분 청산(2000 년 이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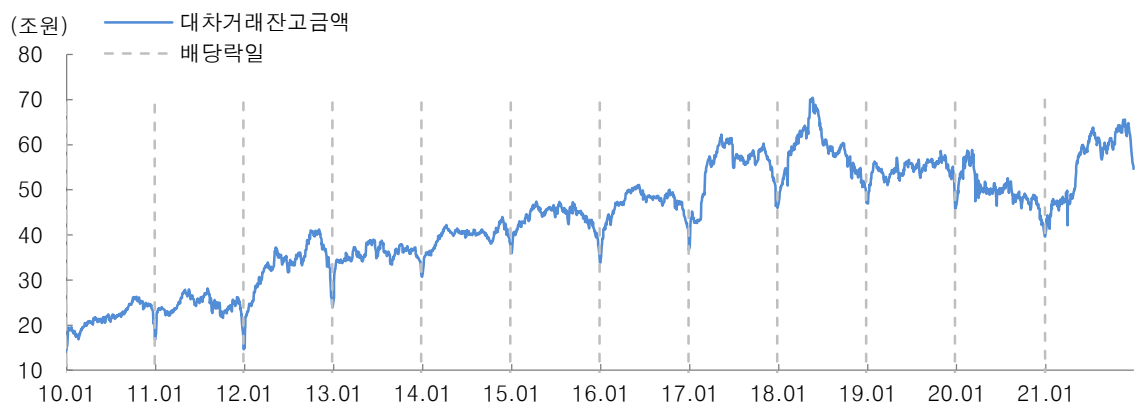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12월에 유입된 프로그램 매수는 1월, 2월 대부분 청산(2010년 이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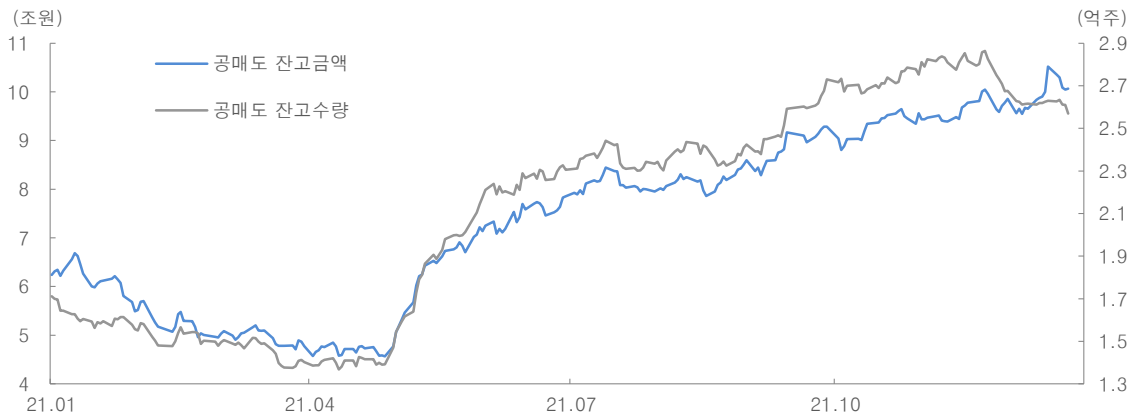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 매년 반복되어 왔던 12월 대차잔고 급감. 2021년 12월에도 한 달 동안 대차잔고 7조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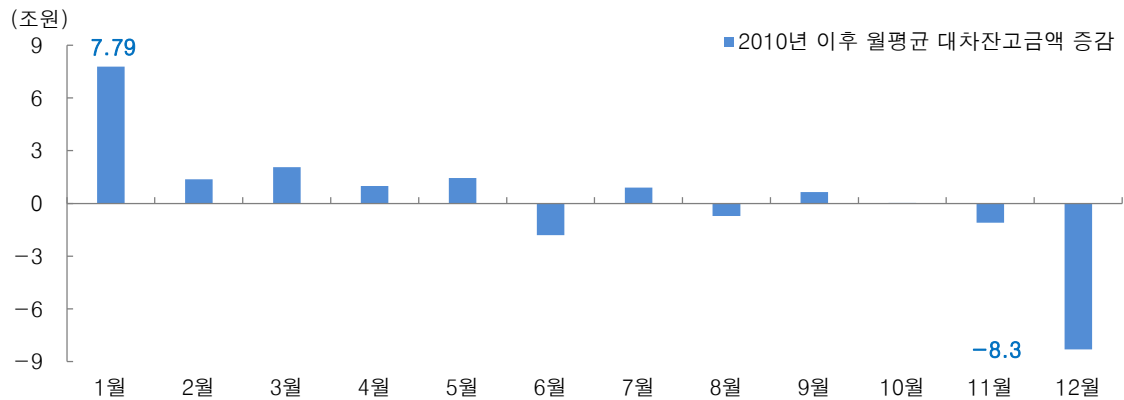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 KOSPI 상승으로 공매도 잔고금액은 증가했지만, 잔고 수량은 2,950 만주 감소(12월 24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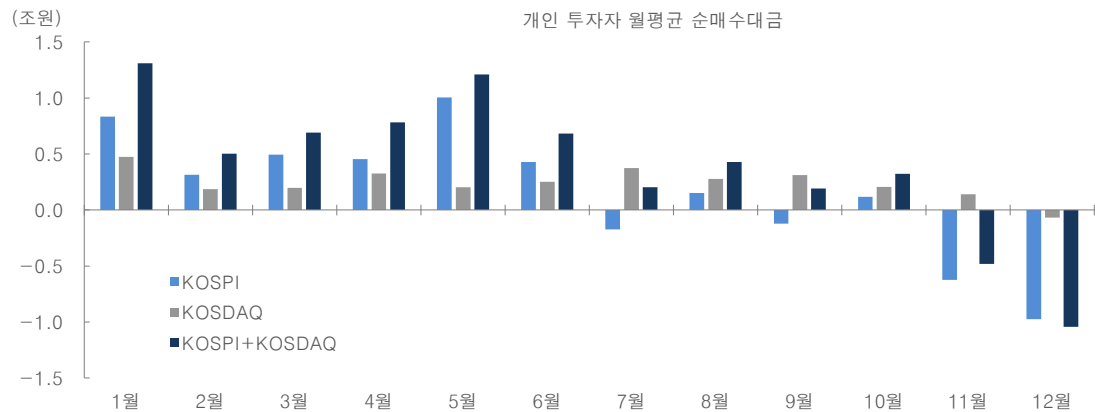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9. 1 월에는 공매도를 새롭게 구축하는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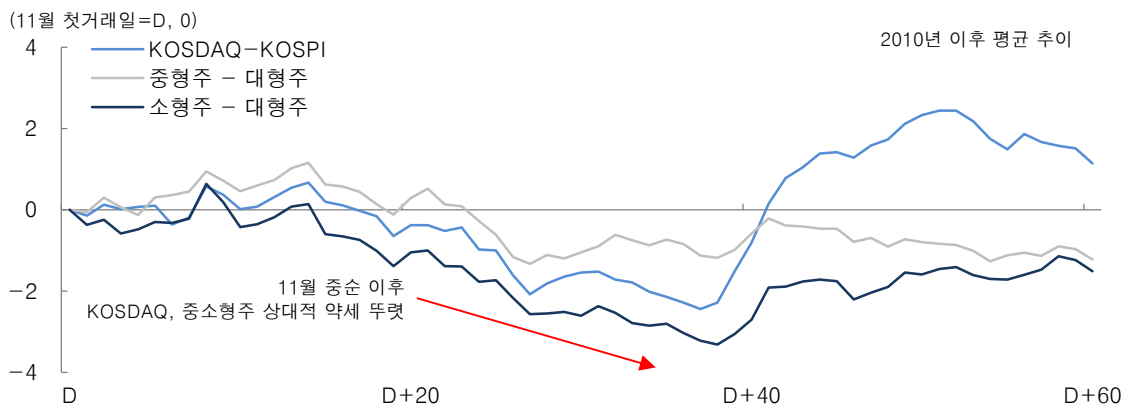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0. 12 월 개인 매도는 1 월 개인 순매수로 전환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1. 12 월 상대적 약세를 보인 KOSDAQ 과 중소형주, 1 월에는 상대적 강세로 전환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경민, 김정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